“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일자	시간	내 용	장소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 14:00	**접수**	그랜드볼룸 (1층)
	14:00 - 14:50	**시작미사**	
	14:50 - 15:00	**쉬는 시간**	
	15:00 - 16:30	**2017년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 해설**	
	16:30 - 17:00	**쉬는 시간**	
	17:00 - 18:30	**카리타스 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안내**	
	18:30 - 20:00	**저녁식사 / 저녁기도**	다이아몬드홀 (2층)
	20:00 - 22:00	**친교의 시간(직원 임면 및 순환보직자 소개 포함)**	그랜드볼룸 (1층)
사랑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십시오.	08:00 - 08:40	**아침미사**	그랜드볼룸 (1층)
	08:40 - 09:30	**아침식사**	다이아몬드홀 (2층)
	09:30 - 12:00	**카리타스 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따른 우리의 실천을 위한 논의**	그랜드볼룸 (1층)
	12:00 - 13:00	**점심식사**	다이아몬드홀 (2층)
	13:00 - 14:00	**도전! 카리타스 골든벨**	그랜드볼룸 (1층)
	14:00 - 18:00	**5대 해결과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토의 +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에 따른 실천방안 도출**	
	18:00 - 18:30	**토의 총평 / 저녁기도**	
	18:30 - 19:00	**식사장소 이동**	
	19:00 - 21:00	**저녁식사 및 친교**	태평소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십시오.	08:00 - 08:30	**아침기도**	다이아몬드홀 (2층)
	08:30 - 10:00	**아침식사 및 산책**	
	10:00 - 11:00	**연수 전체 정리 (결정된 사안 재정리 공유, 파견다짐서 작성 등)**	펄홀 (2층)
	11:00 - 12:00	**파견미사(파견예식- 파견다짐서 봉헌 등)**	
	12:00 - 13:00	**점심식사**	다이아몬드홀 (2층)

Caritas Seoul

Part 1

2017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 사목지침

Part 1

2017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 -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구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뜻에 따라 2013년 한 해를 '신앙의 해'로 지내면서 우리의 허약한 신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신앙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한 해에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어, 기도로 자라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강화의 여정을 걸었고, 올해는 미사로 하나가 되는 신앙의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미사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1]입니다. 주님의 말씀, 공동체의 기도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신앙의 종합선물과도 같은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이며 원동력입니다.

미사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2천 년 전에 배경과 기질이 서로 다른 제자들을 하나로 불러 모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서로 다른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미사 안에 현존하시며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면서 형제적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곳이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를 그으면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호경을 바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전례 중에는 독서와 복음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루카 8,21)

미사 전례 중에 '신경'을 바치며 가톨릭 교회가 2천 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 온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 신앙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룹니다. 시간적으로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지켜 왔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과 하나가 되고,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 신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 전례에서도 주님과의 일치, 신자들 서로 간의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예물을 봉헌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당신 자신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어려운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과 일치를

1)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전례 헌장」, 10항.

이룹니다. 성찬 전례의 핵심인 영성체에서 주님과의 일치, 신자들 간의 일치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몸인 성체를 영하게 되면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요한 6,56) 또한 사도 바오로가 역설하듯이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는 이들은 그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6-17)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당신과의 일치 안에서 서로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가정 안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듯이 신앙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전달되기에 교회를 멀리하면 신앙의 불꽃은 쉽게 꺼져 버립니다. 어머니이신 교회의 품 안에 머물면서 미사에 참례하여 복음을 함께 경청하고,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가진 바를 서로 나누고, 영성체로 주님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룰 때 신앙은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미사 중에 주님의 말씀과 성체의 힘으로 신앙이 자라나 굳건해질 때 세상에 나아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성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인 동시에 이웃에게 빵과 신앙을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약속을 상징한다."고 하시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영적·물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2]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 14,16)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쪼개진 빵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3] 삶을 쪼개어 나눌 수 있는 힘은 바로

2)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강론(2016.5.26.).
3) 참조: 교황 베네딕토 16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 88항.

성체성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사랑의 힘[4]을 믿고 체험하고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굳건한 믿음, 확고한 희망, 따뜻한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교회와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에는 특별히 미사 전례의 핵심이자 '교회 일치의 원천이며 친교의 공현(公顯)인 성체성사'[5]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교구민 모두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사제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축성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여러분 손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랑의 기적을 증언하며 전달하는 고귀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 거룩한 미사를 첫 미사 때와 같은 기쁨과 열정으로, 생의 마지막 미사처럼, 유일한 미사처럼 거행하십시오. 또한 감실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며[6], 감실 안에 머무시는 주님을 세상 삶의 자리로 모셔 가십시오.

수도자 여러분, 감실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 곁에 머무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친교를 더욱 깊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삶에 의미와 충만함을 채우고 증언하십시오.[7]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지만 삶에 필요한 빛과 힘을 성체성사에서 얻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정의 아름다움과 사명을 충만히 체험하기 위해서 성체성사의 은총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성화의 기반은 세례성사에 있으며 성체성사에서 그 극치를 이룹니다.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사

4) 참조: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 강론(2016.5.26.).
5)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21항.
6)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30항.
7)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30항.

랑의 마음과 나눔의 신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8] 아울러 '가정은 최초의 신앙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육자'이므로[9] 부모는 믿음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고 뿌리내리도록 보살펴야 할 자신의 의무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미사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례하기 바랍니다. 미사 전에 성실히 준비하도록 합시다. 전례 시작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심을 올리는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잠시라도 가집시다. 또한 그날 미사 독서와 복음 말씀을 미리 읽고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내적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합시다.[10]

성체 공경은 미사 중에는 물론, 미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체께 마땅한 흠숭을 드리기 위해 개인적인 성체 조배와 공동체가 함께 하는 성시간과 성체 강복에 자주 참여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노령으로 미사에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병자 영성체로써 영적 도움을 주는 일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미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화의 열정을 재발견하고, 교회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가 우리의 삶과 복음화의 중심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사 전례 안에서 체험하는 하느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파견합니다. 우리 교구가 미사로 하나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임을 함께 느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11]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86년도 주교단 사목교서, 「성체와 가정」, Ⅲ-9항,11항.
9)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5년 제10회 교육 주간 담화문.
10) 참조: 교황 베네딕토 16세, 「사랑의 성사」, 55항.
11) 참조: 로마 미사 전례서 감사기도 3양식.

성체성사의 모범이시며 인류 최초의 감실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빵과 포도주가 되신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16년 11월 27일 대림 첫 주일에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Part 1

2017년 서울대교구 사목지침

2017년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사회사목국

성체는 사랑과 연대와 자선을 일깨우는 배움터이며, 성찬례 안에서 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모든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떼어 나누게 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15년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삼종기도 강론', 2016년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미사 강론' 참조) 더 나아가 성찬례는 하느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을 넘어 사람과 창조된 생태계를 이어 줍니다. 성찬례를 통해 세 가지 차원의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성찬례를 통해 온 세상은 강생하여 현존하시는 아드님과 하나 되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찬례는 이웃형제들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책임을 일깨우며 그것을 다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찬미받으소서] 236항 참조)

1. 지역 내 경찰서와 지구대에 있는 경찰과 의경들의 영적돌봄을 위하여 신앙 교육 및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봉사자(선교사) 양성 및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 저임금, 불안한 고용, 위험한 사업장 안에서 노동의 가치가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문제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목교서 중에서)

그러나 백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 일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당구역 내 노인 양로원, 노인 요양원, 노인 전문병원 등에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각 지역, 지구, 본당에서는 구역 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미사를 거행함으로써 같은 신앙을 지닌 어르신들과 시설종사자들이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 서로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쁨과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4. 중독자들이 치료를 통해 회복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한다.
5. '미사로 하나가 되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본당 지역 내의 가난한 사람(노인, 청년, 아동, 여성, 이주민 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하느님의 자비가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문화예술 복음화'를 통해 전례 안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7. '예물을 봉헌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당신 자신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어려운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들과 일치를 이룹니다.' (사목교서 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난 성체성혈대축일 강론에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영적·물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체성사의 은총을 받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가이드북」을 참조하시

어 적극 안내해 주시고, 서울카리타스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각 본당과 기관에서는 미사성제를 통해 지역 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기억해 영적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지향해 주시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에 행하는 모금운동과 2차 헌금에 적극 참여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본당교우들이 본당구역 내 지역사회의 가난한 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사회사목분과와 단체원들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학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해 주시고, 지역 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과의 만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8. 본당 공동체가 농촌본당 또는 공소와의 형제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자매결연은 단순한 농산물의 직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대한 교육과 행사, 도·농 교류, 일손 돕기 등 인적교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당 내 우리농 활동단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관계가 이어져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참된 의미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이(본당, 교육기관, 병원, 사제관, 기관 등) 이 운동에 동참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일용할 양식'을 중심으로 생명의 밥상을 마련합니다. 성찬의 정신인 생명과 나눔을 구체화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신자들의 각 가정 안에서, 밥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9.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난민 등 이 땅의 이주민들은 비록 우리와 피부색, 언어와 생김이 다르다할지라도 같은 하느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들이 우리 신앙과 교회 활동의 힘의 원천인 미사에 편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환대하여 주시고, 교회의 작은 공간일지라도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이들에겐 정말 큰 힘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10. 일반병원 내 환자 및 보호자의 영적 돌봄을 위한 체계적인 봉사자교육 뿐만 아니라 직원 교우들이 미사를 포함한 성사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알코올중독과 각종 중독으로 힘들어 하는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영성으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성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인 동시에 이웃에게 빵과 신앙을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약속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쪼개진 빵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삶을 쪼개어 나눌 수 있는 힘은 바로 성체성사에서 비롯됩니다.' (사목교서 중에서)

각 본당에서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과 「자살예방본당릴레이캠페인」에 교우들이 적극 동참해 우리 주변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살유가족들과 자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생명수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각 본당에서는 장기기증희망신청, 조혈모세포기증희망신청, 헌혈하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본당교우들이 생명나눔에 적극 동참해 성체성사의 은총을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성체성사의 은총은 인류전체를 향해 나아갑니다. 전 세계 가난한 이들과 영적연대를 이루고 그들의 고통과 가난을 돌보기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헌미헌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13.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작은 일상적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고결한 일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사용을 삼가고, 물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적당히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며, 대중교통을 이요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천하고, 나무

를 심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것입니다. (「찬미받으소서」 211항)

※ 사목교서와 사목지침서 전문은 법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Part 1

2017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

Part 2

Caritas Seoul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Code of Ethics & Conduct for Staff

Part 2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국제 카리타스 회원기구를 위한 윤리강령[12)]

소개

국제 카리타스의 활동은 성경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을 통하여 규정되고 이를 지향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애정 어린 인격적인 만남[13)]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 받는다. "카리타스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의 손길"[14)]이며, 가난하고,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을 구현한다. 카리타스는 인간의 전인적 통합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재난과 분쟁과 불의로 야기되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국제 카리타스 내규 1.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원 기구는 운영, 조직 기반, 재정의 자립과 책임, 최고 평의회와 결정한 행동 윤리 강령의 준수와 같은 최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회원 기구는 법률적, 재정적, 계약상 지위에서 자율성을 가진다."

12) 국제 카리타스는 전 세계 200여개 나라와 영토에서 인도적 지원, 개발, 사회 서비스와 옹호 활동을 펼치는 가톨릭 사회복지 기구로서 165개 국가 카리타스 회원 기구들의 연합회이다.
13)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커지고, 커지고,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남은 우리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만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 성 가예타노 축일 영상 메시지, 2013년 8월 7일)
(https://zenit.org/articles/pope-francis-message-for-the-feast-of-saint-cajetan/)
14) 국제 카리타스 최고 평의회 회원들에게 전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담화(2013년 5월 17일)

국제 카리타스는 그 교회법적 토대가 되는 정관과 내규뿐만 아니라,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과 지침들을 마련해 왔다.

- 카리타스 파트너십 핵심 가치 (2003)
- 국제 카리타스 아동 보호 정책 모형(Framework) (2004)
- 국제 카리타스 군사적 관계에 관한 지침 (2006)
- 국제 카리타스 환경 정의에 관한 지침 (2006)
- 국제 카리타스 긴급 구호 지침 (2007)
- 국제 카리타스 운영 기준 (2014)

또한 국제 카리타스는 다음에 조인한 기구이다.

- 국제 적십자, 적신월 운동과 비정부기구를 위한 행동 강령
- 스피어 프로젝트의 인도주의 헌장과 인도적 재난 대응의 최소 기준

더욱이, 국제 카리타스는 국제 인도주의 개발 공동체의 주요 네트워크로서 카리타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고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좋은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윤리 강령은 위에 언급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와 원칙들을 규범적으로 요약 진술한 것이다. 또한 윤리 강령에는 모든 회원 기구와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틀이 담겨 있다. 국제 카리타스와 회원 기구와 그 직원들[15]은 모든 활동에서 이러한 가치와 원칙들을 구현하고자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연민을 적극적으로 증언한다.

15) 이 강령의 목적을 위해, "직원"은 이사회 회원, 고용된 직원, 자원봉사자, 감사, 모든 차원에서 연합회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국제 카리타스 운영 기준에는 회원 기구가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운영 기준은 이러한 윤리 강령이 조직적인 정책과 행동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직원을 위한 행동 강령”은 모든 카리타스 직원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기술한 것이다.

국제 카리타스는 대부분의 회원 기구와 직원들이 대단히 양심적이고 진실되게 행동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윤리 강령의 가치와 원칙들이 모범이 되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 문서는 모든 차원에서 국제 카리타스 회원 기구와 직원들에 대한 지도 규범이다. 그러나 이 윤리강령을 통하여 우리는 연합회 전체에 걸쳐, 무엇보다도 카리타스의 정체성과 교회적 사명에서 더욱 큰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카리타스 연합회의 회원 기구는 1) 서면으로 윤리 강령과 운영 원칙을 채택하거나, 2) 윤리 강령과 운영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각 기구에 맞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교구 카리타스도 이러한 윤리강령을 채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 카리타스 회원 기구를 대신하여 교구 또는 다른 파트너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최소 기준들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강령은 국가와 교구의 카리타스 인사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직원은 강령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가치와 원칙 :

모든 인간 생명은 잉태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신성하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빚어진 모든 여성과 남성은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에 앞서고

또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16]이다. "인간은 그 깊은 본성에서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도 없다."[17] "모든 사회생활은 그 명백한 주인공인 인간의 표현이다."[18] "인간을 사회생활의 객체나 수동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보아서는 안 되고, 대신 인간은 그 자체로 주체, 기초, 목적으로 존재하고, 언제나 그렇게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19] "사회 질서는 날로 발전하며, 진리에 토대를 두고, 정의 위에 세워져 사랑으로 활력에 넘쳐야 한다. 또한 자유에서는 날로 더욱 인간적인(humane) 균형을 잡아야 한다."[20]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사회적 본성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성취할 수 있는 사회의 도덕적 비전을 위한 토대이며 영감이다.

가치

1. **정의(Justice)** : 신앙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는 각자의 삶과 조직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전체 창조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공정하고 도덕적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면서, 가난과 소외로 내모는 원인에 항변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동반한다.

1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6항
http://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vat-ii_const_19651207_gaudium-et-spes_en.html)
17) 사목헌장 12항.
18)『간추린 사회교리』106항
19) 비오12세, 1944년 12월 24일 라디오 메시지, AAS 37(1945), 12
20) 사목 헌장 26항

"단체나 개인들이 그들의 본성과 소명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실현할 때, 그 사회는 사회 정의를 보장한다. 사회 정의는 공동선과 공권력 행사와 관계된다."[21]

2. 공동선(The common good) :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성장 가능성의 향유는 우리 사회를 조직화하는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법률적, 정치적)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친교 안에서, 다른 종교 전통, 정부, 폭넓은 시민 사회와 모든 권위자들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고,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언제나 모든 차원에서 인간에게 봉사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지향하는 사회는 공동선, 곧 모든 인간과 전인적인 선을 그 으뜸 목표로 삼는 사회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완성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다른 인간과 "더불어" 다른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22] 공동선은 언제나 인간의 발전을 지향한다. "사물의 안배는 인간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23]

3. 통합적인 인간개발(Integral Human Development) : 우리는 가정과 더 넓은 공동체의 상황과 체험 안에서, 영적, 심리적, 감성적, 신체적, 물질적, 경제적인 측면을 아우르는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개발을 바라본다. 우리는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간에 인류와 공동체 전체를 발전시키고,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구호, 재활, 개발을 가능하게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28항.
22) 『간추린 사회교리』 165항
23) 사목헌장 26항

만드는 요소들 간의 강력하고 한결 같은 연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발전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전체와 인류 전체의 발전 향상이 전체적인 것이라야 한다. 인간 역시 자신의 행동을 명령하고 그 행동의 가치를 판단하며 스스로의 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높으신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본성에 알맞도록 자유로이 본성의 능력과 요구를 받아 계발해야 할 것이다."[24]

4. 연민(Compassion) : 단일한 인류 공동체와 일치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깊은 아픔을 느끼며, 인도주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임무는 가톨릭 교회 기관으로서 그리고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리하여,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방해 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원칙인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랑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알맞은 행동을 합니다."[25]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26]

24)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4.34항
(http://w2.vatican.va/content/paul-vi/en/encyclicals/documents/hf_p-vi_enc_26031967_populorum.html)
25)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31항
(http://w2.vatican.va/content/benedict-xvi/en/encyclicals/documents/hf_ben-xvi_enc_20051225_deus-caritas-est.html)

5.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우선적인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and with the Poor and Oppressed) :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애를 박탈하는 비인간적인 빈곤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억압받는 이들의 자유를 위하여 일하며, 이 땅이 주는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며 그들의 편에 서야 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이 직면한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러 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27]

"빈곤에 맞서 싸우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의 우선적인 선택이나 사랑에서 그 강력한 동기를 찾습니다."[28]"가난한 사람을 '하나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모든 이들 위한 새로운 미래, 더욱 인간다운 미래를 건설하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29]

26) 마태 25,40.
27) 이사 58,6-7
28) 요한 바오로 2세, 라틴아메리카 3차 주교회의 총회 담화 참조, 푸에블로, 멕시코, (1979년 1월 28일), I/8: AAS 71 (1979), 194-5
29) 요한 바오로 2세, 200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4항, AAS 92(2000), 366면.

6. **존중(Respect)** :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옹호하는 종교 전통들과 문화, 구조, 관습을 존중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의 초월적 존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된다."[30]

7. **연대(Solidarity)** :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연대하여 일하며, 그 열매로 평화와 정의, 인간 발전을 성취한다. 연대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세상을 이룩하겠다는 공동 비전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

"연대성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적 본성,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과 권리, 그리고 일치를 향한 개인과 민족의 공동 노선을 특별히 강조한다."[31]

원칙 :

1. **파트너십(Partnership)** :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공유된 가치와 전략, 정보에 기반하여 합의한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에 대한 정직한 피드백, 공동 계획, 동반, 투명성, 책임과 다른 이들의 요구, 감정, 전문성, 경험, 지혜에 대한 진정한 개방성과 민감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상호 존중, 신뢰, 선의에 기반한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은 회원 기구들과, 우리와 비전을 공유하는 다른 기구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들 사이에서 연대를 만들어낸다."[32]

30) 『간추린 사회교리』, 132항
31) 『간추린 사회교리』, 192항.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justpeace/documents/rc_pc_justpeace_doc_20060526_compendio-dott-soc_en.html)
32) 국제 카리타스, 카리타스 동반자 관계 원칙 : 성찰과 행동을 위한 국제 카리타스 핸드북 (2003년, 로마, http://www.caritas.org/upload/par/partnership.qxd1.pdf), p.14.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 카리타스는 회원들의 정당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격려하고 조정하며 대변하고 역량을 키움으로써 회원들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33]

2. 보조성(Subsidiarity) : 우리는 권한, 결정, 책임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그 수준에 위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극대화하고 강화할 수 있다. 카리타스 정체성의 중심은 국가, 교구, 본당의 카리타스에 있으며, 우리는 이들이 더욱 큰 자율성과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회 철학의 근본 원리이다. 따라서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된다."[34]

3. 참여(Participation) :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사업의 계획, 운영, 실행에 참여하고, 초기 사정에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참여는 인간 존엄성의 표현이며, 인류 공동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의미한다. 카리타스는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의 토대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발 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한다.

33) 국제 카리타스 정관 1.5
34) 비오 11세, 회칙 『사십주년』(Quadrogesimo Anno), 79항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공공 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선 실현에 공헌해야 할 권리가 나온다."[35]

4. 권한강화(Empowerment) : 우리는 사람들이 충만한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실현하며, 상호 존중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돕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삶의 질을 조절하고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시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회원 기구들과 함께 통합적인 인간 개발과 권한강화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저는 시끄러워지기를 바랍니다. ... 그러나 저는 각 교구 안에서도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거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 편안하고 고착된 모든 것 ... 우리 자신 안에 우리를 가두는 모든 것에 대항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당도, 학교도, 기관도 모두 밖으로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36]

5. 독립성(Independence) : 카리타스 회원 기구로서 우리는 운영의 우선순위와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국내외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 그러하다.

"현대 세계의 긍정적인 표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갖는 연대 의식과 서로 돕는 노력과, 사회적 무대에서 행하는 공공연한 시위가 점증하는 점이다. 공공연한 시위는 폭력에 호소하지 않

35)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Pacern in Terris), 26항.
36) 프란치스코, 아르헨티나, 리우데자네이로,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 2013년 7월 25일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speeches/2013/july/documents/papa-francesco_20130725_gmg-argentini-rio.html)

으면서도, 국가 당국의 미비점이나 부패에 직면하여 자기들의 필요와 권리를 제시하는 방법이다."[37]

6. 관리와 책무성(Stewardship and Accountability) :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 전체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따금 원조 수혜자가 원조 제공자에게 종속되고, 발전에 쓰여야 할 자금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비싼 관료주의를 유지하는 데에 쓰느라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제 단체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그들 수입의 몇 퍼센트가 협력 계획에 할당되는지와, 그러한 계획들의 진행 내역, 마지막으로 단체의 상세 지출 내역을 기부자와 대중들에게 알려 주어 철저히 투명하게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8]

7. 모든 이들에 대한 평등, 보편성, 공정성, 개방성(Equality, universality, impartiality and openness to all peoples) : 평등하게 창조된 모든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들은 참으로 인간다운 세상을 집단적으로 구현하며 이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공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들의 동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

37)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39항.
(http://w2.vatican.va/content/john-paul-ii/en/encyclicals/documents/hf_jp-ii_enc_30121987_sollicitudo-rei-socialis.html)
38) 『진리 안의 사랑』, 47항.
(http://w2.vatican.va/content/benedict-xvi/en/encyclicals/documents/hf_ben-xvi_enc_20090629_caritas-in-veritate.html)

에게 봉사해야 한다. 인종, 연령, 성별, 신체적 능력, 민족, 신조 또는 정치적인 신념과 무관하게, 참으로 어떠한 종류의 불리한 차별도 없이, 그들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들의 요구에 따라 공정하게 봉사해야 한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천명하며 이를 수호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비길 데 없이 특별한 존재입니다.'[39]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가치와 자부심, 그 고유한 특성을 증진시키는 계획들을 통해 재능을 표출할 기회를 마련한다면, 각자의 특별한 개성을 혼동하거나 뒤섞지 않고 여성도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40]

8. 보호(Protection) :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히,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각국의 법률, 카리타스의 아동 보호 정책 모형(2004) 및 기타 좋은 실천 사례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고통을 인정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 보장과 그들이 발생시킨 혐의를 적절하기 위해 정직하고 투명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같은 이유에서, 교회가 이러한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외 없이 다른 기관들도 동일한 기준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합니다."[41]

39) 베네딕토 16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가톨릭 운동들과의 만남, 앙골라 루안다, 2009년 3월 22일, Insegnamenti V/I, 484면
(http://w2.vatican.va/content/benedict-xvi/en/speeches/2009/march/documents/hf_ben-xvi_spe_20090322_promozione-donna.html)
40) 베네딕토 16세, 아프리카 주교 대의원 회의 후속 교황 권고, 『아프리카의 사명』 (2011), 57항.
(http://w2.vatican.va/content/benedict-xvi/en/apost_exhortations/documents/hf_ben-xvi_exh_20111119_africae-munus.html)
41) 베네딕토 16세, 미국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 방문(Ad Limina) 중에 하신 연설, 2011
(http://w2.vatican.va/content/benedict-xvi/en/speeches/2011/november/documents/hf_b

9. 지역 경제(Local economies) : 우리는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현지의 자원과 생산물을 사용하고,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지역 경제를 지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공급을 고갈시키거나 예외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사회 하위 단체들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사법적 지원이라는 적극적 의미로 이해되는 보조성은, … 그러한 기본 세포들의 활동과 자유와 책임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42]

10. 창조물에 대한 보호와 환경 영향에 대한 관심(Care for creation and attention to environmental impact) :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인간과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 인류는 지구와 지구의 모든 자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의 진정한 관리인으로서 행동하며, 우리 모든 활동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의 유산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피조물을 가꾸고 보전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역사의 시초에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내리신 지침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계획에 속하는 것으로, 세상을 모든 이를 위한 동산, 모든 이가 살아가는 곳이 되도록 만들면서 이 세상을 책임감 있게 키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43]

11. 조정(Coordination) : 우리는 국가의 정부와 지방 당국, 교회, 다른 종교 단체, 시민 사회, 다른 구호 및 개발 단체들, 그리고 다

---

en-xvi_spe_20111126_bishops-usa.html)

42) 『간추린 사회교리』, 186항

43) 프란치스코, 2013년 6월 5일 일반 알현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audiences/2013/documents/papa-francesco_20130605_udienza-generale.html)

른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조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 활동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도좌의 권고로 생겨난 국제 카리타스는 일반적으로 카리타스의 각국 지부인 자선 기구들의 연합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부에 부여된 자율성을 전혀 제한하지 않으면서, 이 연합회는 교육, 조정, 대변의 활동을 통하여 협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44]

12. 옹호(Advocacy) :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대신하여, 그들과 함께,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빈곤과 불의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이를 증언하기 위하여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옹호활동을 수행한다.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사회 변혁과 변화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저는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분들이 축적한 체험은 여러분이 건실한 인류관을 지닌 국제 공동체 안에서 변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에서 양식을 얻고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데 헌신하는 변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삶과 활동의 증거는 여전히 중요하며, 온전한 인간 선익의 진보에 공헌하는 것입니다."[45]

13. 배움과 직원 계발(Learning and Staff Development) :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성찰

44) 요한 바오로 2세, 칙서 최후의 만찬, 국제 카리타스에 교회법상 공법인격 부여, 2004년 9월 16일.
(http://w2.vatican.va/content/john-paul-ii/en/letters/2004/documents/hf_jp-ii_let_20040916_caritas-internationalis.html)
45) 베네딕토 16세, 국제 카리타스 총회 참가자들에게 하신 연설, 2011년 5월 27일

과 역량 강화, 관찰과 평가, 지식 관리와 전략적 기획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직원들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 경험, 양성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 내고 카리타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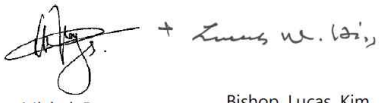
"(교구, 국가, 국제 차원의) 카리타스 기구를 비롯한 교회의 사회 복지 기구들은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무엇보다도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려면 우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력자들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돌보는 임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역량이 일차적인 근본 요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하고 있으며, 인간에게는 언제나 적절한 전문적인 도움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간애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46]

14. 직원 보호(Staff Care) : 우리는 모든 직원들이 공정하고 품위 있고 지속 가능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에서 좋은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해당 사법권 내의 고용법을 준수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완수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둔다."[47]

46)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47) 『간추린 사회교리』, 301항.
(http://www.vatican.va/roman_curia/pontifical_councils/justpeace/documents/rc_pc_justpeace_doc_20060526_compendio-dott-soc_en.html)

Card. Oscar Andrés Rodríguez Maradiaga
President
Caritas Internationalis



Michel Roy
Secretary General
Caritas Internationalis

Bishop Lucas Kim
President
Caritas Korea

2014년 5월 18일 국제 카리타스 최고 평의회 승인.

Part 2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국제 카리타스 회원기구를 위한 행동강령

이 행동 강령은 카리타스의 모든 직원[48]이 지켜야 하는 태도와 행동을 명시한다. 행동 강령은 카리타스 기구들의 근본 가치와 조직적 실천 사항들을 규정한 카리타스 윤리 강령에서 비롯되었고, 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을 섬기려면 우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력자들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돌보는 임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역량이 일차적인 근본 요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하고 있으며, 인간에게는 언제나 적절한 전문적 도움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인간애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49]

강령은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4개의 핵심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모든 카리타스 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48) 이 행동 강령이 말하는 "직원"은 이사회 구성원, 고용된 직원, 자원봉사자, 자문 위원들이다.
49)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2015.12.15., 31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제1판 16쇄)

1. 가치와 행동과 윤리

- 사회적 도덕적 가치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며, 최소한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행동이 언제나 최고 수준이어야 하며,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
-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굳건한 신앙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 모든 인간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추행, 학대, 무시, 착취를 거부한다.
- "교회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언"[50]이다.
-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이나 다른 모욕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
- 다른 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양심의 범위 안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 모든 직원과 그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보건, 안전, 보안 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카리타스의 명성이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카리타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나 지식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어떠한 형태의 편견이나 차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사랑으로 훌륭하게 수행하며, 카리타스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유지한다.

50)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실천할 때에 언제나 그 지역의 민감한 사안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 다른 카리타스 기구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연대를 이루며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2. 이해 갈등과 강압과 부패

- 경제적, 직업적, 정치적, 성적으로 개인적 이익이나 편의를 얻으려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카리타스 직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부여된 권한 지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카리타스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서 (재정, 개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잠재적 또는 실제적 이해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수퍼바이저나 다른 상급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수혜자나 동반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편의나 뇌물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개인적 이득을[51] 얻어서는 안 된다.

3. 카리타스 재산의 보호와 관리

- 카리타스의 자산과 지적 재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절도나 사기 또는 다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재정 책임의 정직성과 청렴성을 적합한 기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개인행동

- 카리타스 사업체 또는 숙소, 사무실, 차량 등을 포함하여 (소유 또는 임대한) 부동산에서 어떠한 종류의 무기도 휴대해서는 안된다.
- 위락 약물을 사용하거나 지나친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 성적인 행위는 언제나 (그 사회의 문화의 전문직 윤리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1) 국가적 지역적 전통과 관습적인 환대 방식을 존중하기 위하여 카리타스를 대신하여 작은 표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행동 강령의 실행

의장이나 국장은 모든 직원이 행동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게 해야 하며, 이 행동 강령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국제 카리타스 행동 강령의 채택이나 적용은 국제 카리타스 내규 제1조 3항에 규정되어 있고, 국제 카리타스 운영 기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항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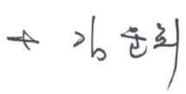
외적인 항의 절차는 국제 카리타스 운영 기준 제1조 7항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이는 특히 수혜자,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동반자 직원들이 항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의무

모든 직원은 이 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우려나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직원은 그 수퍼바이저에게 우려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최대한 상세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예 : 관리자가 연루된 경우) 이러한 절차가 가능하지 않다면, 더 높은 관리자, 이사회 구성원이나 다른 적절한 권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폭로는 기밀로 다루어질 것이다. 직원이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 중대한 비행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사람은 누구나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것이다. 고의로 거짓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중대한 규율 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강령의 위반

행동 강령에 대한 모든 위반 행위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김운회 주교
한국 카리타스 이사장

2014년 5월 18일, 국제 카리타스 최고 평의회 승인

Part 2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Caritas Seoul

Part 3

토의자료

Part 3

모둠 토의

Part 3

토의자료

Part 3

토의자료

Caritas Seoul

Part 4

안내자료

Part 4

안내사항

시설장 임면

1. 시설장 임면

연번	시설명	임면사항		발령일	비고
		면	임		
1	마포구립 연화어린이집	-	조현주 (전 서초구립 성분도어린이집 원장)	04.25.	신규 수탁
2	중곡종합 사회복지관	-	한은경 (전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	07.01.	신규 수탁에 따른 승진발령
3	시립평화로운집	Sr.이종인	Sr.유진선	08.10.	소속수녀회 인사이동
4	신당종합 사회복지관	Fr.이상렬	Fr.송명은	09.01.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인사 이동
5	한빛종합 사회복지관	Fr.한철호	Fr.권구택	09.01.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인사 이동

2. 부장, 사무국장임면(순환보직)

연번	성명	순환보직내용		발령일	비고
		전임지	현임지		
1	문중호	법인사무국 계장	중곡종합사회복지관 부장	07.01	승진
2	신혜선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과 과장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	07.20	승진
3	정경일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강일성모노인요양원 사무국장	09.01	승진

3. 법인사무국 순환보직 외

연번	성명	순환 보직 내용		발령일	비고
		전임지	현임지		
1	김정하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법인사무국 자원개발팀	08.11.	-
2	김지혜	-	법인사무국 사회복지팀 (육아휴직 대체)	05.02	-

※ 육아휴직 : 법인사무국 사회복지팀 최승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CI활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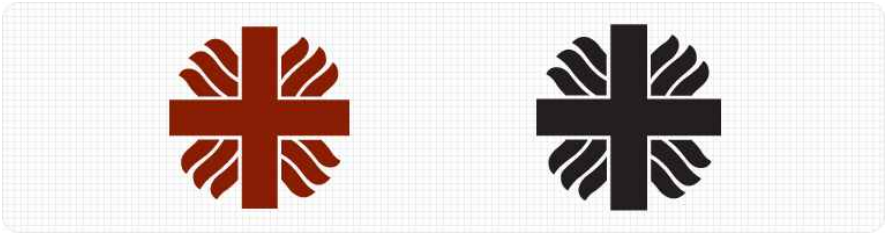
1. CI란?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을 가리키며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라고도 한다. 사원들로 하여금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게 하고 외부로 표현하는 동시에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전략 가운데 하나로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정보화시대로 바뀌면서 기업의 정체성 표현뿐 아니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로 시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기업 로고나 상징(symbol) 마크를 통해 나타난다. CI는 다른 기업의 차이점을 표현하여야 하며 지속성과 일관성, 해당 기업 문화 및 경영전략과 들어맞아야 한다. [출처] CI [Corporate Identity] (두산백과)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경우 Caritas seoul Identity로 나타내며, 법인의 정체성을 담은 시각적 이미지이자 표식이다.

2. CI에서 드러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정체성



1) 네 방향으로 뻗은 붉은 색 불꽃과 십자가는 애덕(사랑)을 상징한다.
2)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십자가 기둥은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위에서 아래로)과 하느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아래에서 위로)을 의미한다.
3) 좌우로 뻗은 십자가는 하느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웃사랑을 표시한다.
4) 네방향으로 뻗은 불꽃은 자신을 바쳐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CI 필요성과 원칙

1) 필요성

· CI매뉴얼 작업은 대한 대내적 인식과 대외적 이미지의 동일화 작업.

· 그동안 법인은 로고나 상징마크, 로고 등을 규정없이 사용하고 있었음.

· 이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CI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통하여 법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미지 통합작업이 필요.

2) 원칙

· 국제카리타스 CI 규정을 승계.

· 산하시설에서 CI적용 시 각기 다른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

· 기존 로고타입이 없는 시설의 경우 법인 CI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

· 한글서체의 경우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가독성이 높은 서체를 지정.

· 응용시스템의 경우 강제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

PBC 평화방송 미니다큐 '나눔'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제작 관련 우수 자원봉사자(개인 또는 단체) 추천 안내

Ⅰ. 기획의도

본 프로젝트는 자비의 희년을 보내며 교회 내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아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 냄으로써 자비의 희년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및 교회 곳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ENG 방식으로 화면에 담아 소개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소감과 느낌을 나누며 시청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형식으로 제작**되며, **평화방송, 평화신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 합니다.**

Ⅱ.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PBC 평화방송 미니다큐 '나눔'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제작 및 방송 형태	- VJ ENG 방식, 총 30분(방송분 22분), 주 1회 총 52편 제작 -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봉사와 나눔현장을 취재 진이 동행·취재 형식 - 본방 1회 및 재방 5회 방송 예정(편성일은 미정)
내용 및 구성	-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실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촬영) - 봉사를 통한 기쁨과 보람, 어려움 등 나눔 - 봉사자의 다짐 또는 기도 - 해당 봉사활동 참여방법 안내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및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안내
주 출연진	-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자(본 회 산하시설 및 서울대교구 본당, 사회사목국 각 위원회 등 소속) - 일반 노력봉사 및 재능기부 봉사자 등
공동제작	- TV PD(VJ) : 촬영, 원고 작성, 편집 - 평화신문 : 촬영 동행 및 기사 작성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우수 자원봉사자(개인 및 단체) 선정 및 섭외
제작일정	방송일정 (2016년 대림 ~ 2017년 11월 / 총 12개월) - 기획, 섭외, 홍보 : 2개월 (2016년 11월~12월) - 촬영, 가편, 종편 : 12개월(2016년 11월~2017년 11월)

Ⅲ. 제작방향

1.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봉사와 나눔의 모습을 소개하고 자원봉사자로서 기쁨,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소개합니다.

2.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와 나눔이 신자의 의무이자 사명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3.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봉사와 나눔에 관심이 있으나 정보가 없거나 방법을 몰라 참여하지 못했던 신자들이 봉사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4. **관련 컨텐츠를 교회 내외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향후 영문판으로 제작하여 한국 가톨릭 교회의 봉사와 나눔 활동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5. 교회 안에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봉사와 나눔의 형태를 많이 알리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다큐는 특정 자원봉사자가 아닌 **특정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춰 촬영과 편집이 진행**됩니다.

Ⅴ. 협조요청사항

우리 사회 및 교회 곳곳에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색있고 우수한 자원봉사자(개인 및 단체) 추천을 요청드립니다.

- 추천기간 : 2016년 11월 ~ 12월까지
- 추천방식 : 본 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bokji)에서 추천양식 다운로드.작성 후, 이메일로 발송(scvc@hanmail.net)
- 추천기준 : ① 가톨릭 신자여야 함.(단체의 경우, 가톨릭 신자가 포함된 경우 가능)
  ② 최소 6개월 이상 활동 중에 있는 분
  ③ 본 다큐 프로그램 출연이 가능하고 촬영에 동의
  ④ 노력봉사와 더불어 전문봉사, 재능기부 봉사영역 추천 희망
- 지 원 : 소정의 출연료 제공
- 협조사항 : **해당 기관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게 되며, 촬영 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홍희정 계장(02-727-2248)

※ 촬영은 2016년 11월~2017년 11월까지 진행되며, 출연 회차 및 촬영 일정은 평화방송 측과 협의하여 조율할 예정입니다.
※ 방송 영상은 교회 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됩니다.
① 평화방송 : TV 방송, 해외 방송국 통한 방영(영문판) - 추후 진행
② 평화신문 : 신문 기사 및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SNS)
③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소식지 및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SNS), 교구 홍보국 연계

등록단체 연말보고 및 사업계획 제출 안내

1. 요청시기 : 1월
2. 보고내용
   1) 연말보고 및 사업보고 : 전년도 1월~12월
   2) 사업계획 및 예산 : 당해연도
3. 작성방법
   1) 자원봉사 통합네트워크시스템(www.escvc.or.kr/vtn/register)
      등록요원 홈페이지 접속

   2) 입력방법
   ① 각 기관별 부여받은 아이디로 접속
   (등록요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는 등록요원 교육 이수하면 발생됨)

   ② 메뉴에서 **등록단체** 클릭 ➜ **[등록단체 정보 수정]** 클릭

   ③ 화면 중간 **녹색 바탕** 각 영역 확인참조 (6개 영역)

   ④ 일반정보와 상세정보는 기존 입력된 내용 확인 및 필요시 수정 요망

⑤ ✓사업보고 / ✓사업계획 / ✓예결산 / 교구청보고 입력요망

⑤ 입력 이후 ✓ 저장 꼭 클릭!

4. 문의사항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팀 이영주 ☎ 02- 727-2245

Caritas Seoul

Part 5

미사 및 기도

미사 및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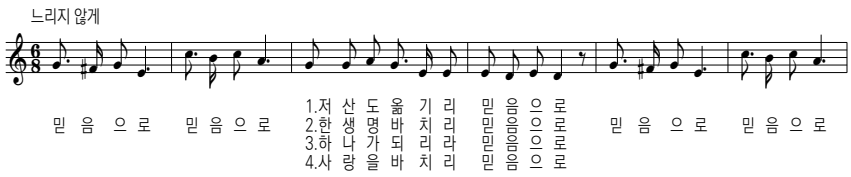
시작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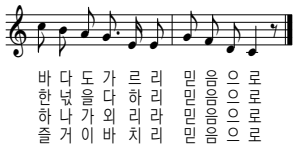
(백) 성 대 레오 교황 학자 기념일

입당성가

480 믿음으로

Paul Roder





제 1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7-20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빚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이!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20-25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자들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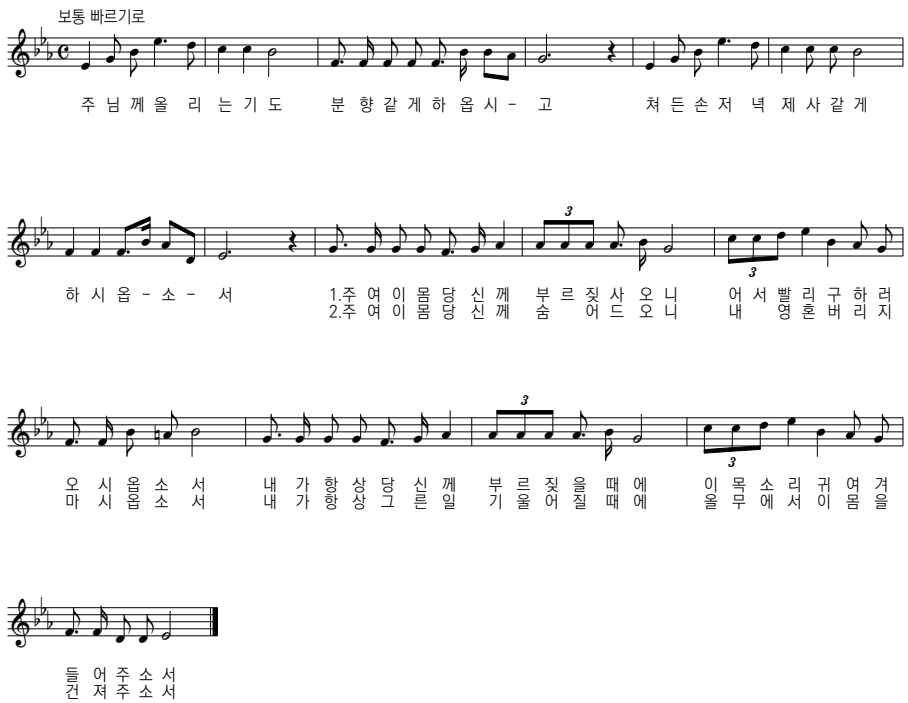
1.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조국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3. 카리타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4. 연수에 참여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봉헌성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시편 141)

이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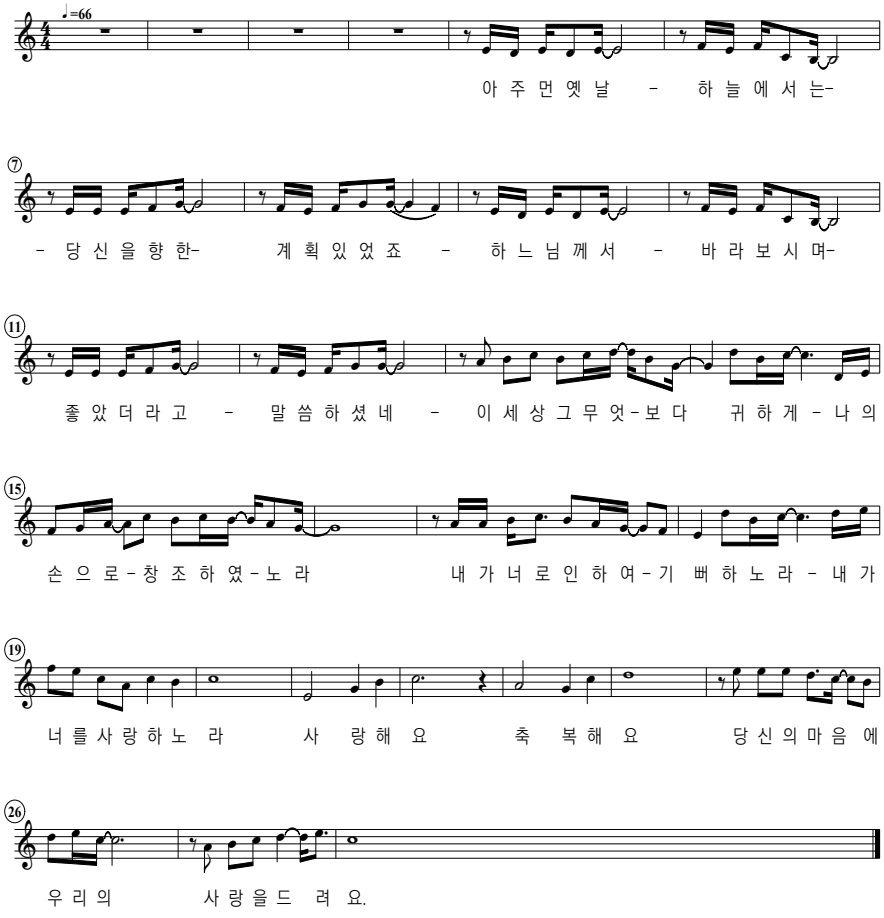


영성체송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파견성가

당신을 향한 노래



미사 및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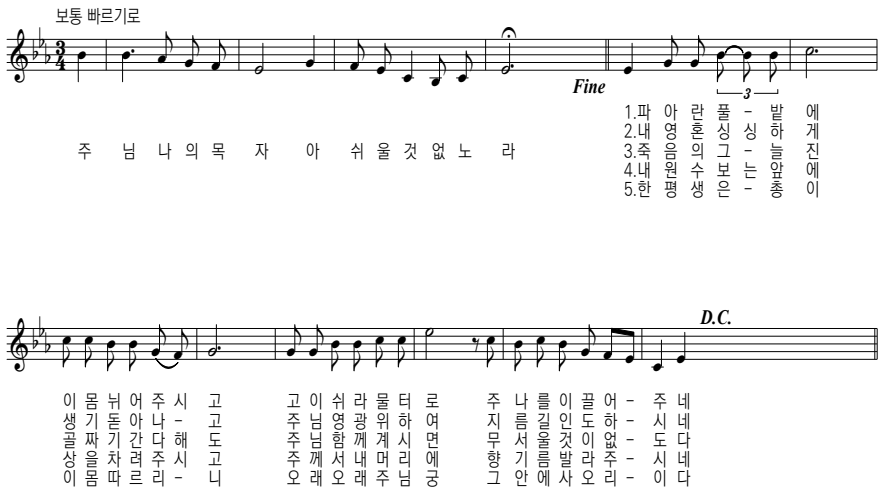
둘째 날 미사

(백)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

입당성가

50 주님은 나의 목자(시편 23)

Joseph Gelineau



제 1 독서

▥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4-9

선택받은 부인이여,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부인,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써 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 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일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찾나이다. 당신 계명 떠나 헤매지 않게 하소서. ◎

○ 행여 당신께 죄를 지을세라, 마음 깊이 당신 말씀 간직하나이다. ◎

○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

○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26-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자들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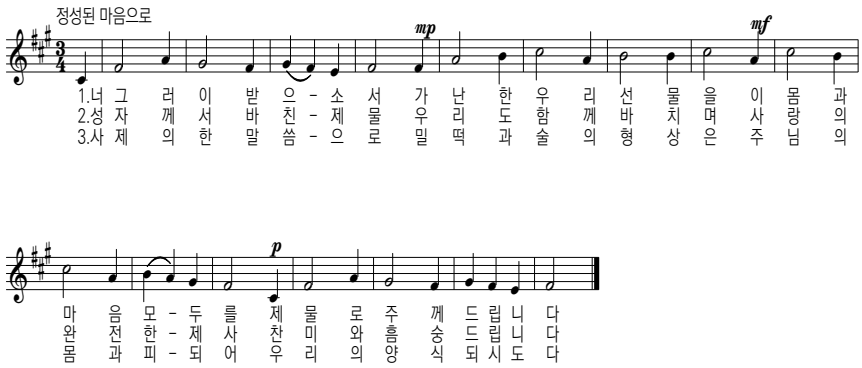
1. 평신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3.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4. 저희 카리타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

◎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봉헌성가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그레고리오 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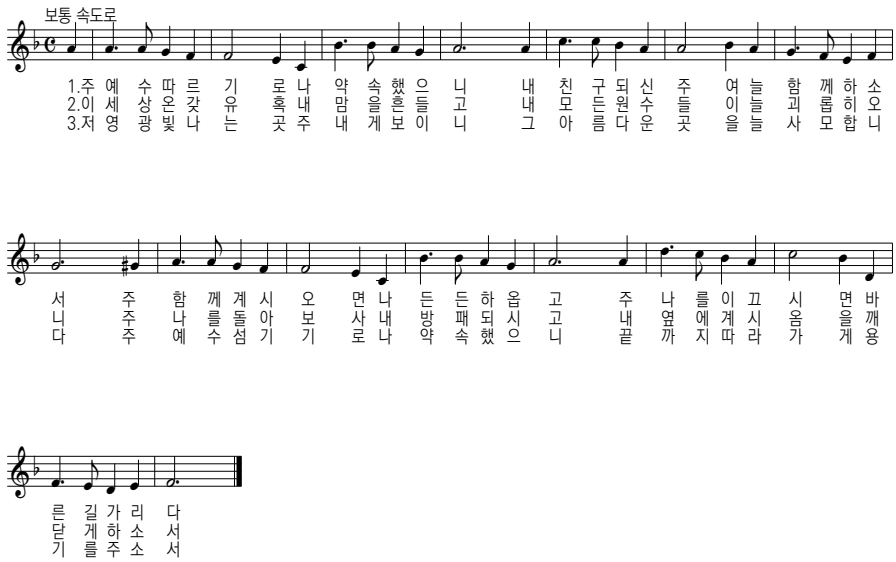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파견성가

29 주 예수 따르기로

Arthur H. Mann



미사 및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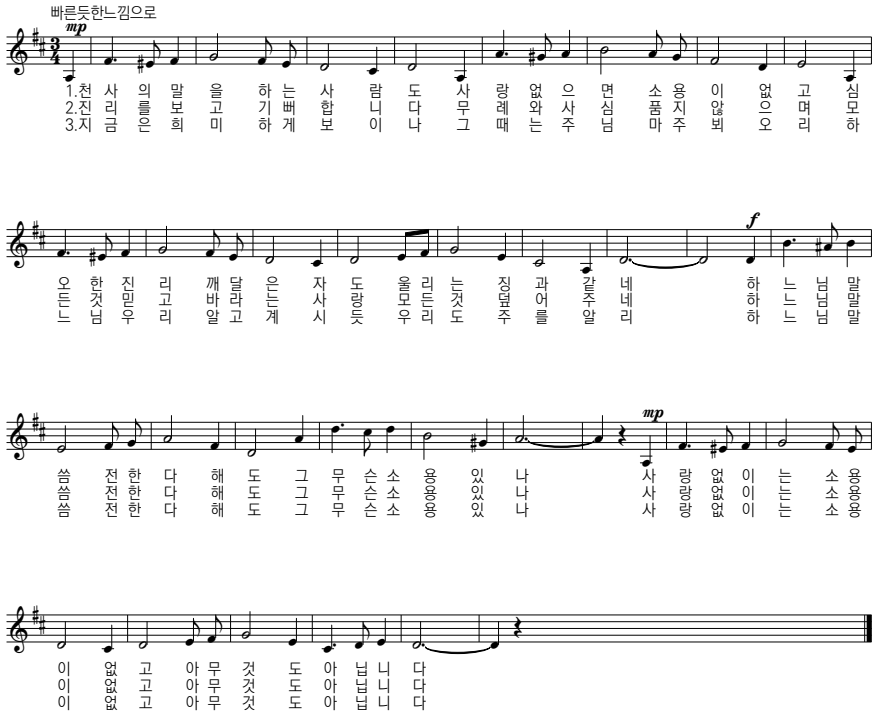
파견미사

(홍) 성 요사팟 주교 순교자 기념일

입당성가

46 사랑의 송가(1고린 13)

Tina Benitez



제 1 독서

▥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5-8

사랑하는 가이오스,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낯선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맞갖도록 그대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이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 계명을 큰 즐거움으로 삼는 이!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올곧은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

○ 부귀영화 그의 집에 넘치고, 그의 의로움 길이 이어지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

○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1-8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자들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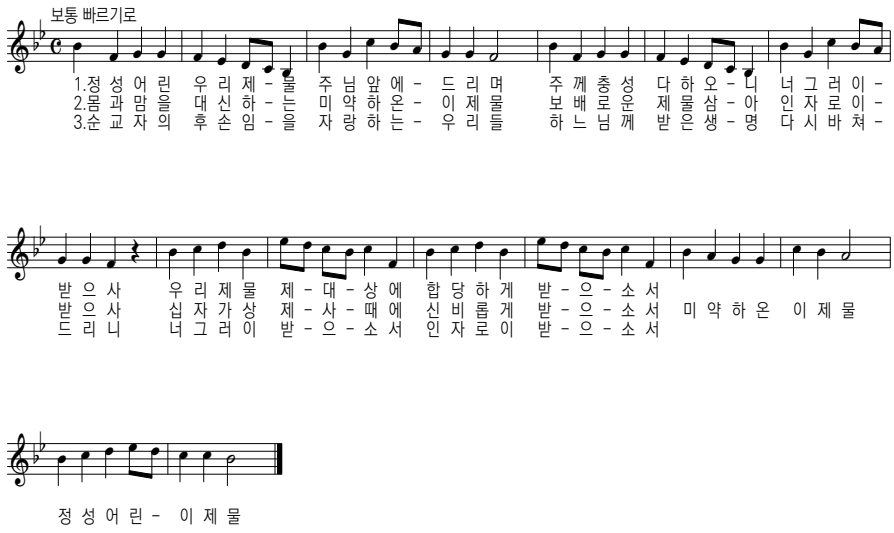
1. 성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
3.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4. 연수에서 파견되는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봉헌성가

217 정성 어린 우리 제물

김남수 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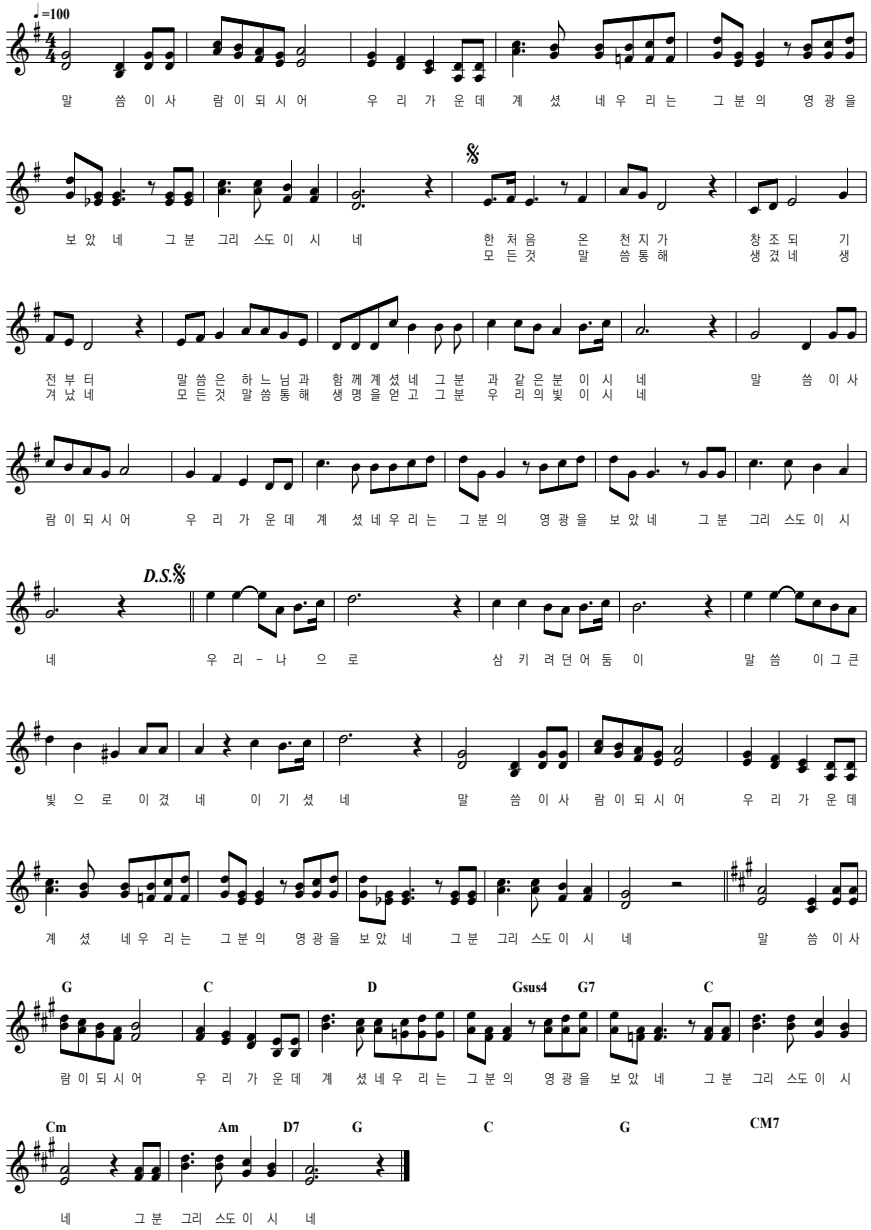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파견성가

로고스 찬가

김태진곡



미사 및 기도

기도문

아침기도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아멘.

◎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 아멘.

┼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주소서.
◎ 아멘.

저녁기도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잠깐 반성한다.)

◎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아멘.

○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시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 아멘.

＋ 전능하신 천주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 아멘.

식사 전 기도

℣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식사 후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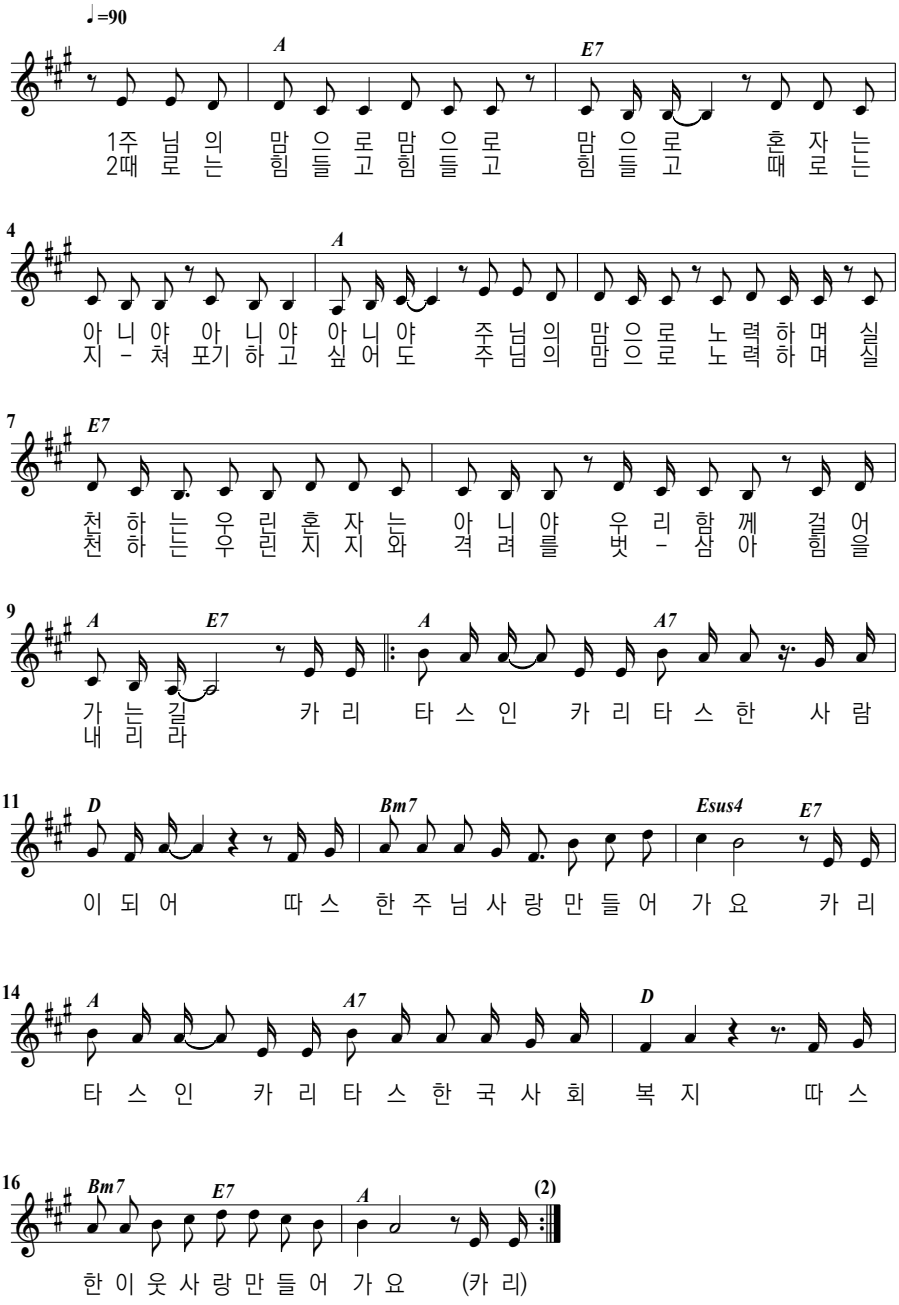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아멘.

℣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위령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카리타스인의노래

김대건, 표경흠 작사 신상옥 작곡